



보도 일시	2022. 9. 14.(수) 11:00	배포 일시	2022. 9. 14.(금) 09:30
담당 부서	경제안보공급망 기획단 공급망 관리 제도화팀	책임자	팀 장 장용희 (044-287-1530)
		담당자	사무관 이용호 ( <a href="mailto:yhlee3380@korea.kr">yhlee3380@korea.kr</a> ) 박현석 ( <a href="mailto:dal tn20@korea.kr">dal tn20@korea.kr</a> )

## 공급망 안정화 관련 기업·협회 간담회 개최

### : 공급망 기본법 주요내용 설명 및 업계 건의사항 청취

-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‘22.9.14일(수) 09:30에 한국 자동차산업 협회에서 자동차 및 배터리 분야 기업·협회를 대상으로 공급망 안정화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음.

#### < 공급망 안정화 관련 간담회 개요 >

- 일시·장소 : 9.14(수) 09:30~11:00, 한국자동차산업협회(서울 서초구)
- 참석자 : (정부) 기재부 제1차관, 공급망기획단 부단장, 관계부처 국·과장  
(경제계) 현대차그룹 김동욱 부사장, SK온 고창국 부사장, 포스코케미칼 정대현 부사장, 포스코홀딩스 이경섭 전무, 자동차산업협회 김주홍 운영위원장, 자동차산업협동조합 고문수 전무이사, 전자산업협회 정순남 부회장

- 이번 간담회는 「가칭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(안)」의 입법예고에 앞서 기업 및 협회에 주요내용을 설명하고,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음.

※ (별첨)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발언

- 먼저,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자동차와 배터리 관련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.
- 자동차와 배터리 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, 높은 성장 잠재력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겸비한 산업입니다.
  -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은 2020년 이후 세계순위 5위를 유지하고 있으며, 배터리 시장의 점유율은 37%로 2위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.
  - 공급망 측면에서 자동차와 배터리 산업은 2차전지용 원재료, 부품, 장비, 완성차 조립까지 전후방 생태계가 촘촘하게 구축된 중추 산업입니다.
- 그러나 자동차와 배터리 분야의 산업 재편 동향이 심상치 않습니다.
  - 중국은 자국산 배터리 탑재 자동차 위주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배터리 생태계를 갖추고 있으며,
  - 미국은 지난 8.16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,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고 배터리 광물·부품도 미국 등에서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.

- 이에 따라 각국은 호주, 칠레 등으로 전기차 원료 및 부품 조달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해당국가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공급망 재편에 따른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.
  
- 이러한 공급망 불안은 앞으로도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- 많은 기업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, 지난 8월 19일 경제6단체 대상 간담회에서도 기업들은 각자의 다양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, 정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.
  
- 이에 정부는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보다빨리 지원하기 위해 「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」 제정을 서두르겠습니다.
  -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안전망을 갖춰 나가겠습니다.
  
- 국가 핵심품목과 관련된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재정·세제·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준비하겠습니다.
  - 공급망 안정화 기금은 정부 보증부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이 관리하는 별도의 재원으로 마련하여, 경제안보에 우려가 될 수 있는 품목, 그리고 기업의 어려운 품목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.

- 아울러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위기대응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.
- 오늘 이 자리는 개별 산업과 기업 단위로는 최초로 공급망 기본법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.
  - 금번에는 배터리 원재료부터 중간재와 완성차로 이어지는 자동차와 배터리 관련 기업들을 초청하여, 기업들의 공급망과 관련된 구체적인 건의사항을 듣고자 합니다.
  - 앞으로도 농식품, 비료, 해운, 물류 등 다양한 산업의 건의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며, 학계·전문가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본법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.
- 정부는 기업이 당면한 공급망 위험을 신속하게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,
  - 관련 업계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.